

2018년 3월 10일 "(성경의 큰 숲 보기 8) 모세 5경 - 궁극적 관심"(신 18:16-20)

교안 전반부에서는 지난 7 회를 복습하고 후반부에서는 궁극적 관심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5 경은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의 신앙적 뼈대를 세워주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각 책의 히브리 원어 제목을 살피면,

- 창세기는 '태초에'
- 출애굽기는 '그 이름들'
-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시니'
- 민수기는 '광야에서'
- 신명기는 '말씀들'

창세기를 통해,

- (1) 세상과 피조계와 사람의 주인(신)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분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 (2)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1) 창조 때 받은 인간 속성과 소명을 회복하여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2)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근원적 죄와 그에 이어지는 결과 속에 잃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3~11 장).

하나님은 사람을 죄/죄의 결과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원래 계획대로 완성하시기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12 아들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인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함으로써 당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창세기). 거기서 우대받고, 번성했지만 수백 년 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조상 A-I-J 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시므로서입니다. 또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름으로써 장자들 죽음의 재앙을 피했고,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한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율법/성막 준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즉,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나보다 크신 분을 인정하고, 내 눈을 주님과 동행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이 **새롭게 익혀져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과 사람의 의미 또한 알고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며 광야 40 년 통해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출애굽 1 세대 장정들은 죽었고, 2 세대가 바통을 이어 받습니다(민 26~). 이들은 긴장했습니다. 1 세대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이들은 듣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영적 위기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 그 땅의 쟁취에 대한 두려움... 복합적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말씀에 순종 한다지만 아직 애매하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며, 진리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요 14:6)

[2] 궁극적 관심,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봉사에 애써도 내게서 아직 옛 사람 냄새가 날 때 좌절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이집트 종 같다고 들을 때이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영적 딜레마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모세도 자신이 온전한 말씀(율법)을 말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신 18:18 “나(하나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예언자 한 사람’은 미래 선지자들의 집합을 뜻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성막의 지침을 완벽하게 지켜도,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모 5 경 안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민 21:8-9 죄 짓고 불뱀에 물릴 때 뿔뿔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고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9 절)

→ 훗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 속에서 영적 눈이 열리고 생명을 누림을 말합니다.

레위기 성막 제사, 제물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1) 백성을 구출하는 모세는 구원자의 모형이므로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2) 어린양의 피로 인해 재앙을 피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심판을 피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3) 율법은 궁극적 실체를 가리킵니다 → 요 5:39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하십니다. (4)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 마 28:20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22:18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

3:15 하와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뜻음>

하나님은 태초부터 궁극적 구원자 그리스도를 백성들의 역사와 활동 속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삶의 참된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말과 행동, 말씀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안에서 참 삶이 배워집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개의 대표적인 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내용을 참고)
2.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무엇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까? 말씀 준수를 통해 바라보아야 할 실체는 무엇입니까?
3. 나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종교 생활에만 치우친 면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